

2021년 7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정책과 과 장 이정삼(044-201-2311), 사무관 홍성현(2318) / 제공일: 7월 16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박영범 농식품부 차관,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

-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차관은 7월 16일(금) 오전 충북 음성군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 방문하였다.
 -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수도권 출·퇴근자가 다수인 사업장으로 지난 2월 중도매인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,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“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”을 강조하고,
 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·개인 방역관리 철저, 사적 모임 제한,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.
 - 아울러 “지자체·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 말했다.
- 또한, 소관 시설별 방역 ‘장관 책임제’ 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,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**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 - *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정책회의(4.12.) 후속조치로 추진(4.15~상황 안정 시까지)
 - ** (10개 분야) 도축장, 경마시설, 가축시장, 동물판매업(경매), 농촌관광시설, 공영 농산물도매시장, 농산물산지유통센터, 화훼공판장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, 바로마켓